

경기 장곡중학교 국어 교사 김미영

낮설고도 경이로운 일상 너머의 세계

『아직 여기에 있어』
전성현 소설집



연계된 교과 영역:
중학교 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문학

책 소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일상 너머에는 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면의 진실'이 있다. 『아직 여기에 있어』에 실린 다섯 편의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통찰을 도구 삼아, 낯설고도 경이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젖힌다.

「스페이스 크랙」은 광활한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생긴 시공간의 '틈'과, 이를 통해 겪게 된 신비로운 경험들을 다룬 소설이다. 「아직 여기에 있어」는 가상 현실 게임 속에 남은 인간의 흔적을 따라가며, 디지털 세상의 윤리와 전쟁을 비롯해 실제 현실의 문제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다. 「나무의 시간」은 기묘한 생명력을 지닌 은행나무 세 그루가 마을 전체를 잠식해 가는 에코 스릴러로, 식물의 움직임 앞에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운 공포를 실감 나게 묘사하며 인간의 책임과 공존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감정 구독자」는 유전자 편집으로 인간을 만들어 내고 감정을 상품처럼 구독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충격적인 반전을 통해 인간다움의 본질을 고민하는 이야기다. 「이별 박물관」은 주인공 '나'가 살면서 겪은 이별들로 만들어진 '이별 박물관'에서 자신의 삶과 상처를 돌아보는 여정을 담았다.

다채로운 다섯 가지 상상력으로 시작한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비정한 각종 재난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질문하고, 상실 뒤에 찾아오는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때로는 서늘한 미스터리로, 때로는 몽클한 치유의 서사로 다가오는 『아직 여기에 있어』는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 책이 전하는 묵직한 울림이 독자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내어,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게 해 줄 것이다.

수업의 초점

1. 핵심어를 활용해 내용 이해하기

각 소설 속 핵심어를 활용해 줄거리를 요약하는 활동을 통해, 읽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며 텍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독서 신문 만들기과 질문을 통해 깊이 읽기

문학적 상상력과 실제 과학의 원리를 연결해 보기, 주요 사건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이 되어 보기, 현재 사회와 연결해 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입체적 관점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사

건 보도 기사 쓰기, 네 컷 만화 그리기, 인터뷰 기사 쓰기, 서평 쓰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독서 신문 만들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활동을 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인물 보고서 쓰기, 나무가 되어 편지 쓰기, 결말 이어 쓰기, 광고 문구 쓰기, 각 소설에 다른 제목 붙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설을 시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독창적인 결과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비고
1차시	생각 열기	제목 읽고 내용 예측하여 써 보기	개별 활동 짝 활동
2~6차시	독서 활동	내용 이해하기 —핵심어 상자에 있는 말 활용해 줄거리 요약하기 깊이 읽기 —질문에 답하며 사고를 심화·확장하기 창의적 표현하기 —질문에 답하며 창의적 사고 키우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7~10차시	독후 활동	독서 신문 만들기 작가의 말을 모방해 시로 표현하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교과 연계 성취 기준

—중학교 국어(듣기·말하기)

[9국01-05] 논제에 따라 타당한 근거를 들어 토론한다.

—중학교 국어(읽기)

[9국02-03]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는다.

—중학교 국어(문학)

[9국05-05]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활동 1 제목을 읽고 내용 예측하기

1. 다음은 『아직 여기에 있어』에 수록된 다섯 편의 소설 제목과 각 소설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제목과 문장을 읽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해 보자.

소설 제목		소설에 나오는 문장
스페이스 크랙	•	•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시간이 칠억 년이야. 식물이 인류보다 더 존재한 사억 년이 넘는 시간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지.”
아직 여기에 있어	•	• 사실 우리의 우주는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있어.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지.
나무의 시간	•	•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힘든 기억을 꺼내 보는 거죠?
감정 구독자	•	•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죠.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갖고 행동하게 해요. 그 결과가 비록 죽음에 이를지라도.
이별 박물관	•	• 전쟁의 프론트 라인에 선 미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2. 1번의 제목과 문장을 읽고, 각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하여 한 문장으로 써 보자.

제목	내가 예측한 내용
스페이스 크랙	
아직 여기에 있어	
나무의 시간	
감정 구독자	
이별 박물관	

| 2~6차시 | 독서 활동

「스페이스 크랙」

「스페이스 크랙」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내용 이해하기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스페이스 크랙」의 전체 줄거리를 5문장 내외로 요약해 보자.

틈, 우주 팽창, 나비, 서커스, 칠 년, 공존

활동 2 깊이 읽기

SF소설 속 상상력은 실제 과학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까? 소설 속 대목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자.

소설 속 대목: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지. 그럼 칠 년 동안 이 놀이터에 있었던 거냐고. (...) 내 말에 그는 손을 내젓더니 아니라고 했어. 기껏해야 이제 두세 시간 지났다고 하는 거야. 난 혼란스러웠어.

과학적 사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다리를 타고 한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다면, 지구에 있는 가족들의 시간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상상해서 써 보자.

.....

.....

.....

.....

활동 3 창의적 표현하기

1. 주인공은 보도블록 사이의 잡초, 낡은 건물의 외벽 등에서 '틈'을 발견했다. 내 일상에서 다른 세계로 연결 될 것만 같은 특별한 장소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유와 함께 적어 보자.

.....

.....

.....

2. '스페이스 크랙' 대신 다른 제목을 붙이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를 적어 보자.

새로운 제목	
그렇게 붙인 이유	

「아직 여기에 있어」

「아직 여기에 있어」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내용 이해하기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아직 여기에 있어」의 줄거리를 5문장 내외로 요약해 보자.

프론트 라인, 스펙터, 러시아어, 답장, 진실

활동 2 깊이 읽기

1.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전투 게임이 실제 전쟁터에 나갈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리온은 큰 충격을 받는다. 기술 개발자는 자신의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까지 책임져야 할까?

찬성	반대

2. 현실에서는 실종된 '미르 47'의 움직임이 데이터로 남아 리온에게 말을 걸었다. 누군가의 기억과 행동 패턴이 데이터로 남아 타인과 교감한다면, 그것을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찬성	반대

3. 만약 인공 지능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를 단순한 '도구'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할까?

단순한 도구로 보아야 한다.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4. 주인공 리온에게 게임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기대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현실'인가?

기대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현실이다.

활동 3 창의적 표현하기

1. 스펙터와 미르 47에 대해 소설 속에서 묘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게임 속 NPC가 아닌 한 명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인물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여주는 인물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이름: Ilya Sidorov
특징:

리온과의 관계:

2.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리온이 스펙터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뭐라고 보낼까?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자.

「나무의 시간」

「나무의 시간」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내용 이해하기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나무의 시간」의 줄거리를 5문장 내외로 요약해 보자.

생태 탐방 캠프, 어린 은행나무, 성장, 생태계, 시간

활동 2 깊이 읽기

1. 만약 소설 속 기묘한 은행나무가 우리 집 마당에서 자라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당하는 행동에 V 표시를 해 보자.

- 지켜본다: 신비로운 생명체이므로 끝까지 관찰하고 키워 본다.
- 신고한다: 위험할 수 있으니 학교나 연구소에 알린다.
- 돌려놓는다: 원래 있던 숲으로 다시 가져다 놓는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2. 은행나무 세 그루를 각각 집에 가져온 서진, 하연, 태오 세 친구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책 속에서 찾아 써 보자.

	은행나무를 어떻게 보관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진		
하연		
태오		

3. 우리 사회에 예측 불가능하고 이질적인 존재(예: 외계 생명체,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등)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나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자.

나의 입장: [] 수용과 공존 / [] 경계와 격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활동 3 창의적 표현하기

소설의 결말 이후, 거대해진 은행나무가 인간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짧은 편지로 써 보자.

인간에게

「감정 구독자」

「감정 구독자」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내용 이해하기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감정 구독자」의 줄거리를 5문장 내외로 요약해 보자.

AWP, 유전자 편집, 감정, 인간다움, 사랑, 결함, 시스템

활동 2 깊이 읽기

「감정 구독자」속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1. 엘은 센터의 전원을 차단하기 직전 '사랑'이라는 감정 키트를 주문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엘에게 왜 이 마지막 감정이 필요했을까?

2. 엘은 존재의 결함을 삭제하고 폐기하는 시스템을 비판했다. 소설 속 미래 사회에서 '완벽함'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3. 만약 '슬픔'을 없앨 수 있거나,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써 보자.

4. 시스템을 파괴한 엘의 행동은 '시스템에 갇힌 생명들을 해방한 혁명'일까?, 아니면 '배양 중인 생명을 갇아
간 범죄'일까?

시스템에 갇힌 생명들을 해방한 혁명	배양 중인 생명을 갇아간 범죄

3. 사건 이후, 경찰에 포위된 엘과 그를 지켜보는 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소설의 마지막 장면 이후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써 보자.

「이별 박물관」

「이별 박물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내용 이해하기

1.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이별 박물관」의 줄거리를 5문장 내외로 요약해 보자.

‘나’(주인공), 엄마의 메시지, 이별 박물관, 큐레이터, 기념품 가게, 작별 인사

활동 2 깊이 읽기

1. 주인공 ‘나’가 관람한 다섯 개의 전시실에는 어떤 기억들이 담겨 있었나? 내용을 떠올려 정리해 보자.

전시실	전시물	담겨 있는 기억과 의미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제5전시실		

2. 아래 내용은 작품 속 '나'의 질문에 대한 '큐레이터'의 대답이다. 결말을 읽고 난 후에 큐레이터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써 보자.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별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별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고요.”

3. 사망한 가족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은 유족의 치유에 도움이 될까? 나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자.

나의 입장: [] 도움이 될 것이다. / []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

활동 3 창의적 표현하기

1.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존재(물건, 사람, 반려동물, 어린 시절의 꿈 등)를 위한 나의 이별 전시실을 만든다면 무엇을 전시하고 싶나?

—전시하고 싶은 것:

—전시물 형태 (물건, 향기, 소리, 영상 중 선택):

—이 전시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2. ‘나’는 ‘기념품 가게’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메시지를 확인한다. 내가 만약 작품 속 주인공 ‘나’ 혹은 ‘나’를 떠나보낸 가족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나?

내가 주인공이라면 (엄마에게):

“ ”

내가 주인공의 엄마라면 (나에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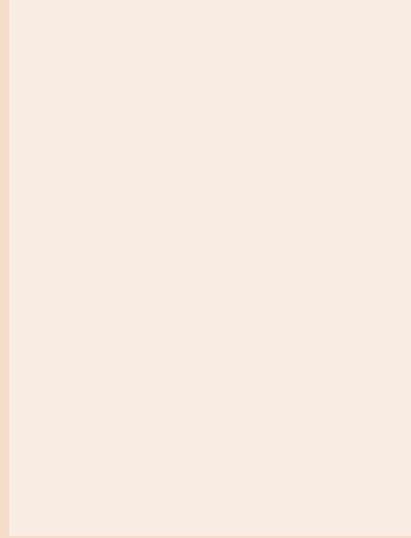
활동 1 독서 신문 만들기

『아직 여기에 있어』 속 다섯 편의 소설 줄거리를 바탕으로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자.

신문 이름		기자	
		발행일	년 월 일
사건 보도 기사		네 컷 만화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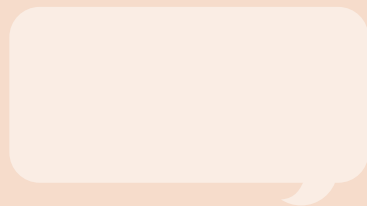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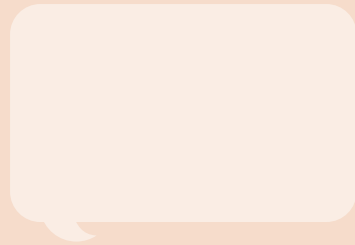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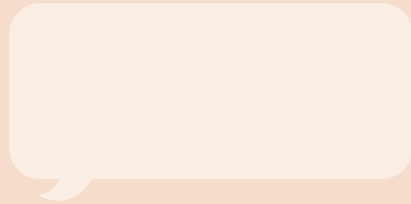
영화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포스터 그리기



인물의 뇌 구조



책 속의 명대사



서평

활동 2 시 쓰기

다음은 작가의 말이다. 작가의 말을 모방하여, 소설을 읽고 느낀 생각을 시로 표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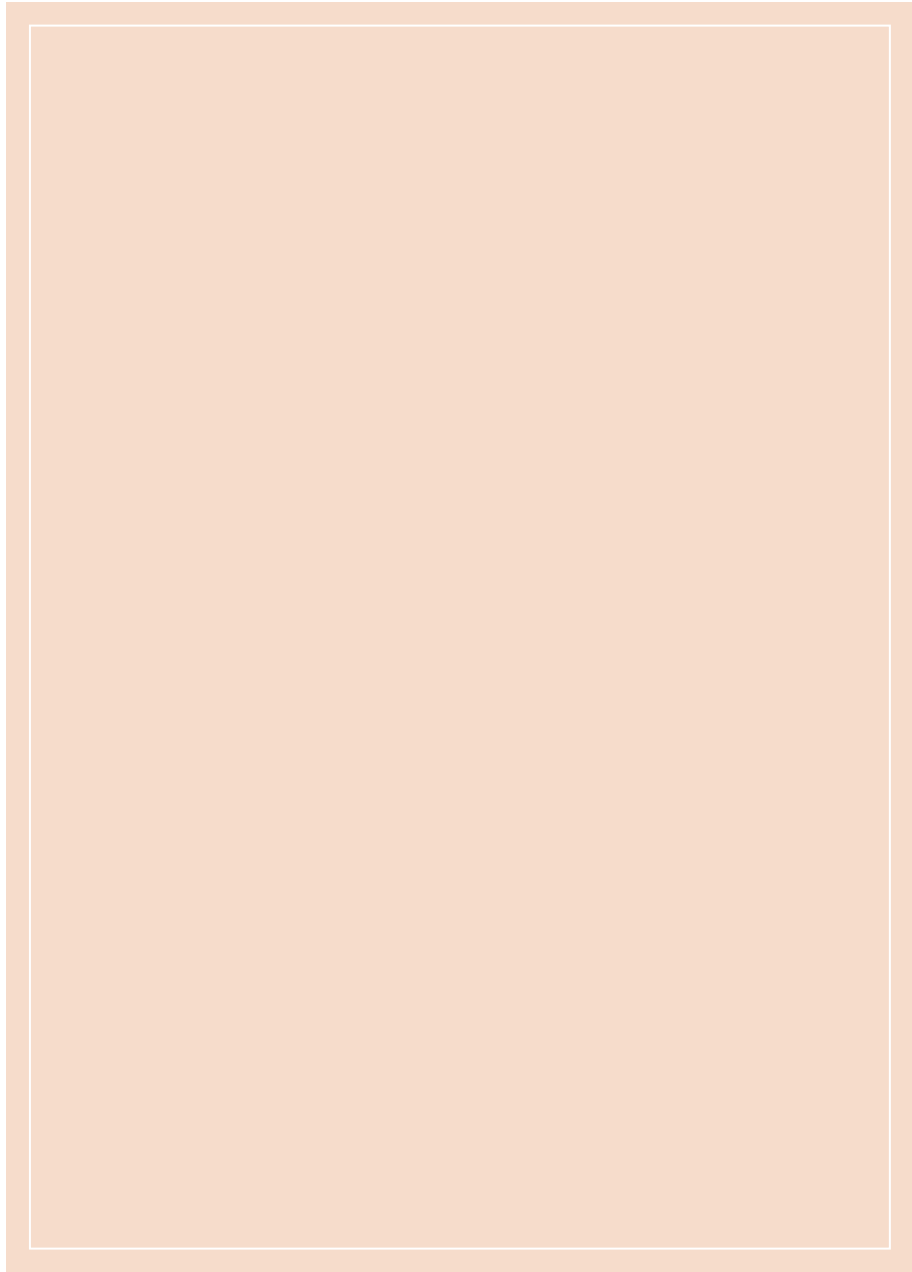
말하지 않았지만 지워지지 않은 생각.
떠나보냈지만 끝내 남아 있는 온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놓쳤다고 여긴 마음들이
아직 여기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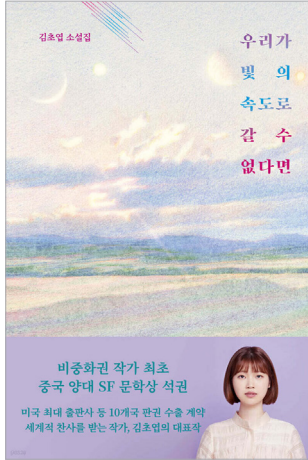
우주의 틈새로 열리는 새로운 시공간,
인간의 흔적이 묻은 데이터 세상,
나무의 시간이 머무는 숲과
유전자 편집 인간이 감정을 구독하는 시대,
그리고 불현듯 찾아온 이별의 공간에서.

끝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지워졌다고 돌아서기 전에 잠시 손을 얹어 보는 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억하고 지키려는 마음은
아직 여기에 있다.



| 한 걸음 더 | 더 읽을 거리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바이오펜서를 만드는 과학도였던 김초엽 작가는 이제 소설을 쓴다.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상상의 세계를 특유의 분위기로 손에 잡힐 듯 그려내며,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소설집이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교양서’라는 찬사를 받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필독서로 자리 잡은 책이다.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인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더 많은 영역을 인공지능에 위임하는 세상이 될 때, 그럼에도 살아남을 인간의 일은 무엇일까? 디지털 인문학자이자 IT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 책에서, 갈수록 뚝뚝해지는 도구와 지혜롭게 관계 맺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영원히 인간의 일로 남을 문제들을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